

★ 발의안 18에 찬성하는 주장 ★

발의안 18은 총선거 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예비 선거 시 만 17세인 경우 그 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중요한 선거 개혁은 생애 첫 유권자가 전체 선거 주기에 참여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투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총선거 시 만 18세가 될 경우에만 만 17세 주민 일부에게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California 전역의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이며, 우리 주 전체를 보다 포괄적인 선거 과정으로 이끌 것입니다.

California 주는 이 문제에 관해서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주 중 거의 절반이 이미 만 17세 주민에게 예비선거와 정당대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생애 첫 유권자로 총선거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예비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총선거 투표 시 선택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발의안 18은 만 17세 주민이 총선거 시 개인이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해당인이 주요 연령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California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California 예비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 (만 18세~만 24세)는 유권자의 14.5%를 차지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청년들은 선출직이 만든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발언권이 극히 미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투표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투표는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한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애 첫 유권자를 선거 과정에 조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시됩니다.

발의안 18은 California 최연소 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활동에 평생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발의안 18을 지지해 주십시오.

**KEVIN MULLIN**, 의회 의원  
CA 의회 22 지역구

**EVAN LOW**, 의회 의원  
CA 의회 28 지역구

★ 발의안 18에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거의 절반"의 주에서 만 17세 주민이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말을 정직하지 않습니다. 18개 주만 이를 허용하며, 그 주의 예비선거는 California 와는 다릅니다. 발의안 13 및 발의안 218로 인해 California 주민은 종종 예비 투표용지에 나오는 세금 제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 17세 주민은 생활비를 벌고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실전 경험은 투표에 필수적입니다. "논리적으로" 만 17세 주민이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경우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California 예비 선거가 3월 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발의안 18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가 8개월 후에 만 18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만 17세인 주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 17세 주민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미성년자입니다.

- 과학은 그들 두뇌의 추론 및 논리적인 부분이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 그들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교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루 5시간 이상, 주 5일)이므로 일방적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 그들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임대료, 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유권자가 투표할 때 자신과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만 17세 주민은 투표하고 싶어할 수 있으나 그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발의안 18에 반대하십시오.

**RUTH WEISS**, 부사장  
Election Integrity Project of California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LARRY SAND**, 은퇴 교사

★ 발의안 18에 반대하는 주장 ★

*발의안 18에 반대하십시오*

"많은 세금 인상과 채권 채무 조치가 예비 선거 및 보궐 선거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성인만 투표해야 합니다." — *Jon Coupal,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의장*  
*만 17살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닙니다*

연방 정부 및 California 정부는 법적으로 성인의 연령을 만 18세로 정했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단 하루가 모자라* 만 18세가 아닌 사람도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태닝 살롱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 17세 청소년*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한 허가서 없이는 *수학여행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California 법은 *성숙도와 판단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만 16세 및 만 17세 주민의 운전면허에 추가 규칙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면허 제한은 *정확히* 만 18세 생일에 사라지며, *그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California 법은 나이와 관련된 두뇌 발달이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반영합니다. 주 전체 및 전국에서 *분별력*을 갖추었다고 동의한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만 17세 주민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들입니다*

유권자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사안의 모든 측면*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 17세 주민은 여전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성적과 미래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추천서 때문에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5일 동안 *학교에 나가서 배워야만 하며*, 교사와 상담사가 추천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California 예비 투표용지에는 종종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교 세금과 채권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유권자와는 달리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만 17세 주민은 이러한 문제의 한쪽 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Los Angeles 통합 교육구는 보궐 선거에서 제안된 세금 인상안인 법안 EE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보화"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학교는 캠퍼스에 거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도록 전단지과 인쇄물을 배포했으며, 학생과 그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자 소셜 미디어 샘플 게시물까지 배포했습니다.

만 17세 주민에게 예비 선거 및 특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면 아마 교실에서 우편투표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와 모든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새로운 부채와 세금을 승인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투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표현하고 문제를 옹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하고 캠페인에 자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은 주 거주자,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가 아닌 사람, 선거일에 최소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투표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유권자는 California 선거를 통해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가질 것인지, 납세자들이 지불해야 할 새로운 부채를 승인할 것인지, 세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인인 유권자가 내려야 합니다.

*발의안 18에 반대하십시오.*

**RUTH WEISS**, 공동 창립자  
Election Integrity Project California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LARRY SAND**, 은퇴 교사

★ 발의안 18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만 17세는 이미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목숨을 걸고 우리 나라에 봉사하고 사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에 전체 선거 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의안 18은 만 17세 주민이 총선거 시 만 18세가 된다면 예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투표하고, 어디서 투표하고, 누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청년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성공적인 생애 첫 투표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 우리 후손은 일찍부터 들인 투표 습관을 대학에 가거나 입대하거나 일하면서도 이어갈 것입니다.

역대 California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020년 3월 예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38%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시민 참여 문제가 있으며, 후손을 위한 투표 문화를 빨리 정착해야 합니다. 한

선거에서 투표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확률이 25% 이상 증가합니다. 기후 위기, 학자금 대출, 의료 서비스, 미래 경제 같은 문제는 청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며, 그들에게 평생 투표 습관을 만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발의안 18에 대한 투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표입니다.

**MARY CREASMAN**, 최고 경영자  
California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CLCV)  
**RICHARD D. ROTH** 상원의원, 미국 공군(USAF) 소장(은퇴)  
**THOMAS J. UMBERG** 상원의원, 미국 육군 대령(은퇴)